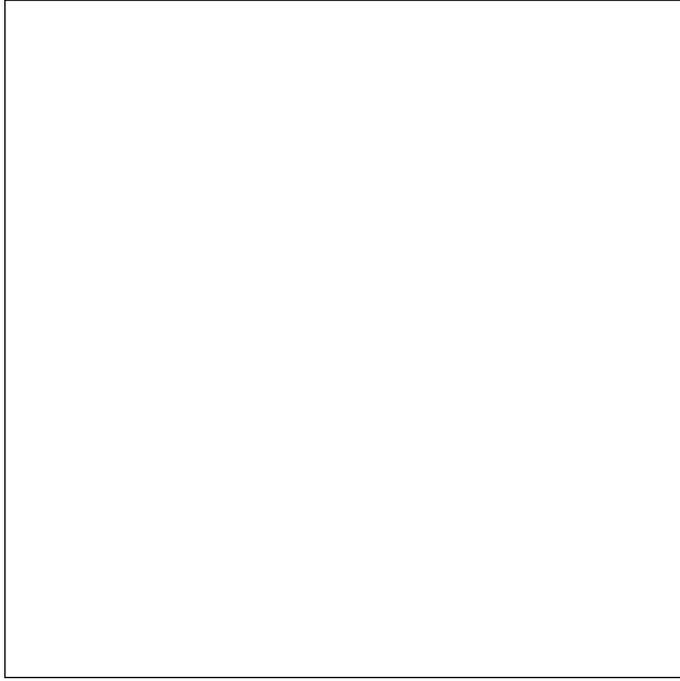


글로벌 스토리북스



✎ Ursula Nafula
✉ Jesse Pietersen
📄 Jong Yong Park
2
🗣️ 한국어
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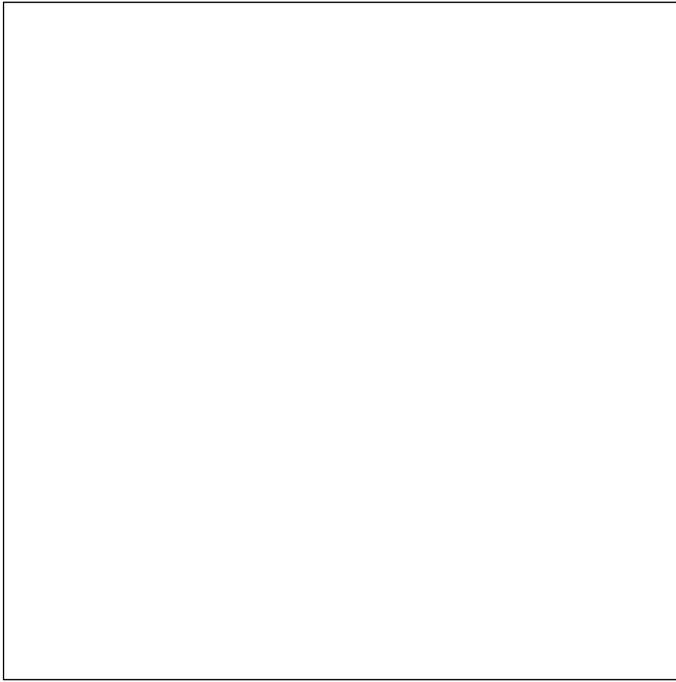
글로벌 스토리북스

✎ Ursula Nafula
✉ Jesse Pietersen
📄 Jong Yong Park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
[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](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)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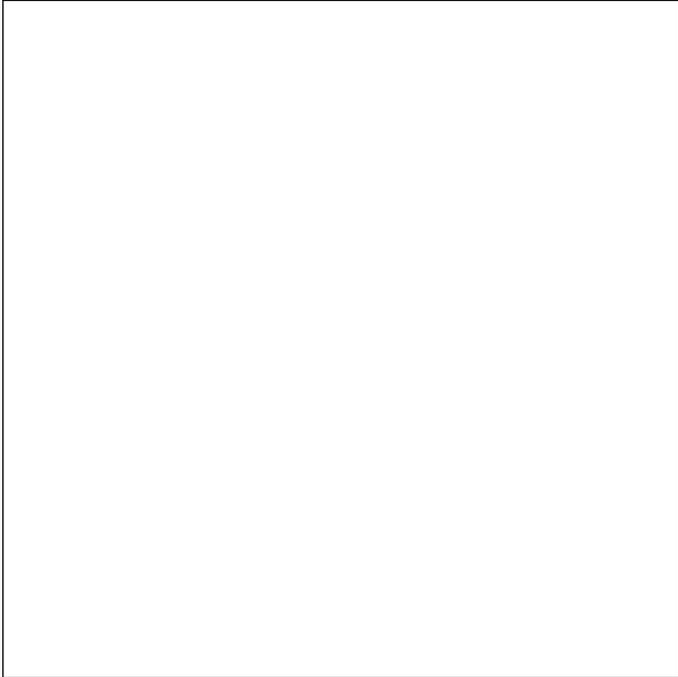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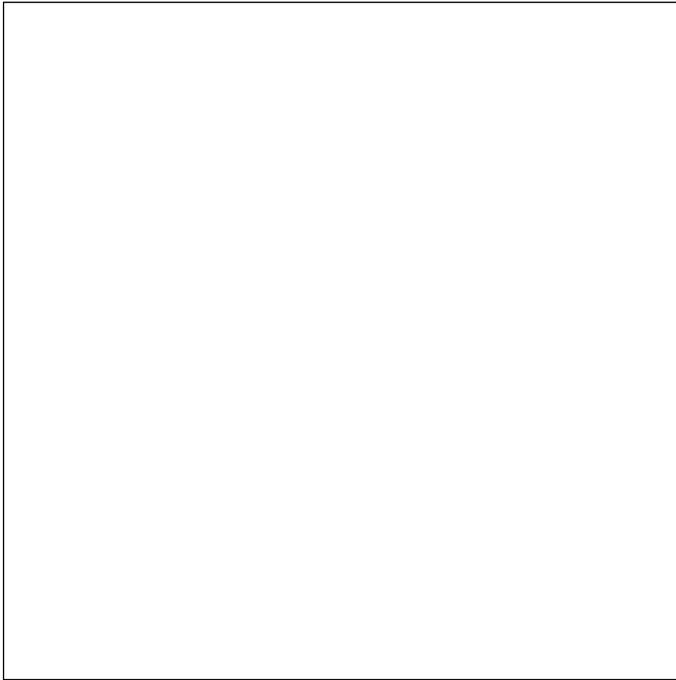


여긴 칼라이예요. 그녀는 일곱살이
죠.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말 루복수
로 “좋은 아이” 라는 뜻 이에요.

“물

우리에게 많은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이다.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.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, 우리에게 사랑을 준다. 물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, 우리에게 힘을 준다. 물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, 우리에게 힘을 준다. 물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, 우리에게 힘을 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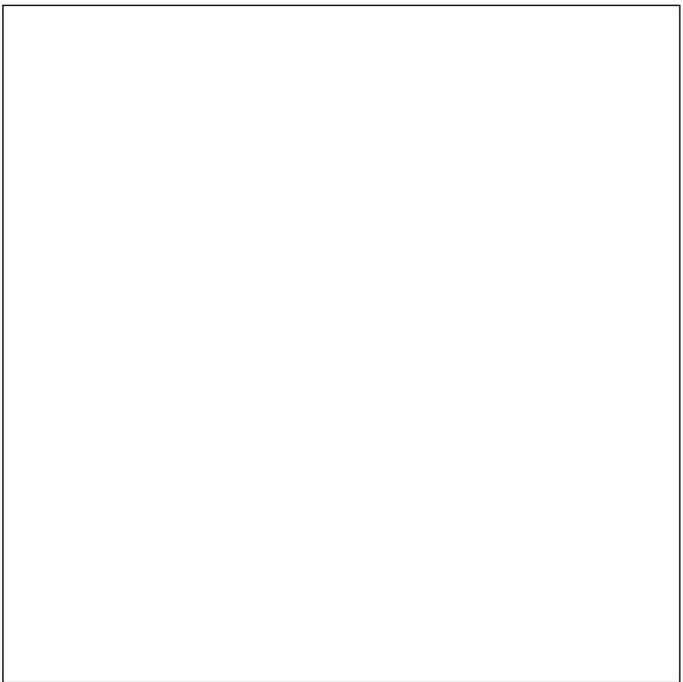


칼라이는 학교로 걸어가요. 가는 길에 풀에게 말해요. “풀아, 더 초록색으로 자라고 마르지 말렴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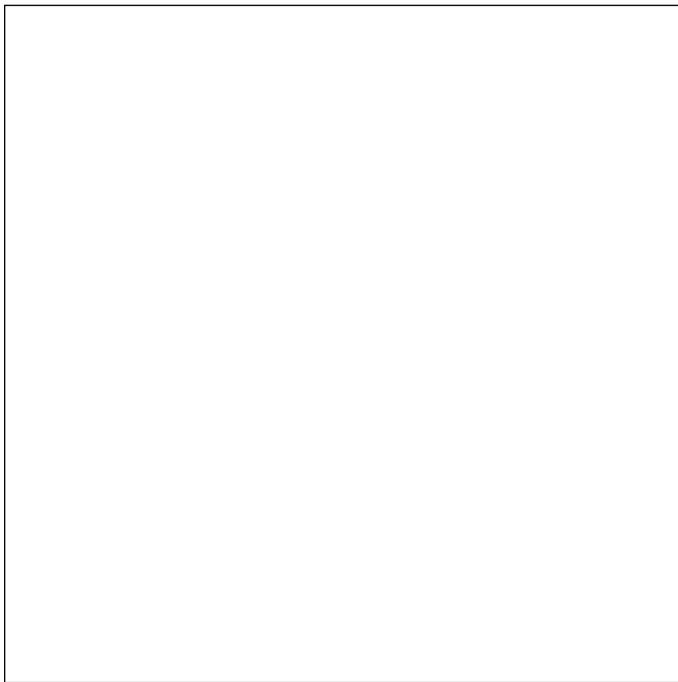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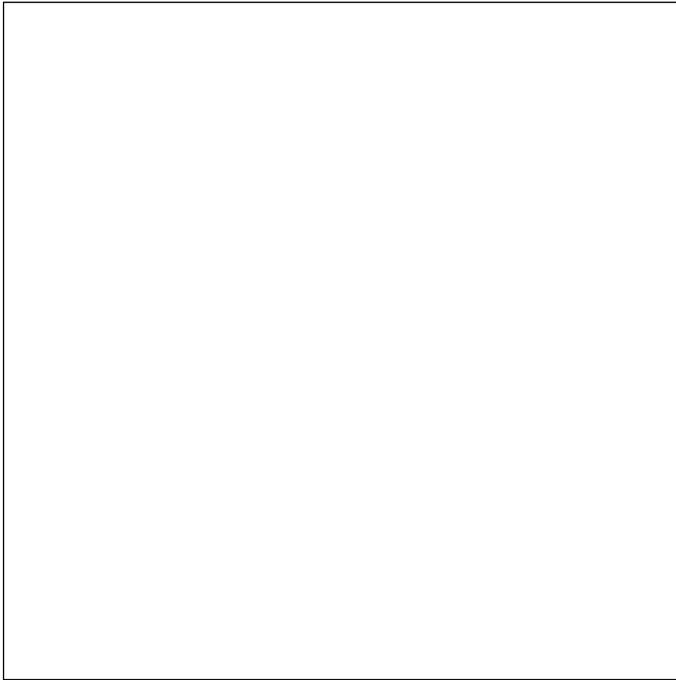
“오렌지가 아직 초록빛이구나,” 칼라이가 한숨을 쉬어요. “내일 보자, 오렌지 나무야.” 칼라이가 말해요. “어쩌면 그 때는 네가 날 위해 잘 익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!”

클라이는 아생화를 지나쳐가요. “꽃
를아, 계속해서 피어나서 너희를 내
머리에 꽃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클라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돌아
때, 오렌지 나무에게 들려요. “네
레지는 아직 있었니?” 클라이가 물어
요.





학교에서, 칼라이는 단지 중앙의 나무에게 말해요. “나무야, 큰 가지를 뺏어서 우리가 네 그늘 아래서 읽을 수 있게 해주렴.”



칼라이는 학교를 둘러싼 생울타리에 게 말해요. “강하게 자라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렴.”